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6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경쟁력지수 77.56점 전국 최고...온택트·웰니스 관광 만족도 높아

여수시는 '2021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사전 기초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최종심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에 따라 국내 산업, 도시, 농·식품, 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 브랜드에 주어지는 상이다.

여수시는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에서 ▲브랜드 인지도 ▲만족도 ▲국제경쟁력 등 6개 분야 소비자 평가 결과, 종합점수 77.56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신안, 남해, 완도, 거제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힐링 여수'를 통한 비대면 힐링 여행, 온택트 랜선여행을 지속 추진했다. 특히 섬·

해양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으며 여수 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과 기대, 잠재 수요를 확보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수시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마케팅 전략으로 여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여수 관광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점검으로 정정여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6년 연속 수상은 여수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휴양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와 4차산업 시대 트렌드에 대응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으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윈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 '금강죽봉'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예고

지죽도에 높이 100m 수직 절벽 응회암 발달한 주상절리 '장관'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의 '금강죽봉(金剛竹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고흥 지죽도의 '금강죽봉'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30일 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강죽봉'이 명승으로 지정되면 고흥지역 첫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이 된다.

지죽도는 도화면 남단에 있는 섬으로, '금강죽봉'은 지죽마을 태산에 있는 주상절리다. 예부터 바위가 대나무처럼 솟아 있어 그 일대를 '금강죽봉'이라 불렀다.

'금강죽봉'은 수직절벽의 높이가 약 100m로 절경을 이루며, 응회암이 발달한 주상절리로 지질학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또 기암괴석, 산 능선부의 역사 군락지, 바위틈에서 자라는 소나무(곰솔) 등 식생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수려한 다도해 경관이 펼쳐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인근의 유주산 봉수대, 수군이 주둔한 발표진 등 관광유적이 다수 분포해 역사·문화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사가 가파르고 주상절리의 특성상 수직절벽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흥의 숨겨진 명소인 '금강죽봉'이 훼손없이 보존 관리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고흥지역 첫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금강죽봉' 전경. (고흥군 제공)

"마리안느·마가렛 희생에 숙연"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고흥 소록도 찾아... "봉사정신 널리 알리겠다"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고흥 소록도와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을 방문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앙거홀처 오스트리아 대사는 지난 5일 소록도를 찾아 한센병박물관, 국립소록도병원 M-치료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사택을 방문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두 사람의 발자취가 기록된 기념관을 관람하고 영화를 시청했다.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부부가 지난 5일 고흥 소록도와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을 방문했다. (고흥군 제공)

최한 전시회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를 보았다"면서 "이들 계기로 두 분 간호사의 헌신과 삶의 애환이 서린 소록도를 방문하게 됐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고흥군은 두 간호사를 위해 명예도로와 사택 등 록문화재 지정, 명예 군민증 수여, 1004 생활안정자금 지원, 마리안느와 마가렛 다큐 제작 및 상영을 했으며, 올해는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을 제정해 4월까지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정하용 고흥부군수는 "2021 노벨평화상 추선을 통해 두 분의 인류애가 전 세계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곡성읍 시가지 '핑크색 품는다'

리본 프로젝트 추진... 도로 개선·비밀언덕 신축 등

곡성군이 읍내 시가지를 핑크빛 색으로 꾸미기로 했다.

곡성군은 최근 경관위원회를 열어 '곡성읍 리본프로젝트 경관협정'을 승인·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리본프로젝트 경관협정 수립을 추진한 지 약 10개월만이다.

'리본 프로젝트'는 도로 개선, 비밀언덕25 신축, 상가 외벽 및 간판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중 경관협정 사업으로 약 550m에 달하는 중앙로 일대 외부 경관을 새롭게 꾸며 곡성만의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한다.

경관협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곡성읍 중앙로 상가 벽면을 핑크색으로 채색, 한층 화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핑크색으로 선택된 이유는 전문용역 결과 곡성 세계장미축제, 석곡 코스모스, 섬진강변 철쭉에 근거해 곡성을 대표하는 색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디자인 간판은 '뉴트로'를 기본 콘셉트로 꾸민다. 복고적 서체와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사용하고, 디자인 가이드를 설정해 간판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에 질서를 부여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미적 균형과 조화를 통해 한층 수준 높은 시가지 경관을 보여줄 것"이라며 "주민 주도로 경관 협정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후에도 거리를 스스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백운산 계곡 불법어업 단속 광양시, 4~10월 4대 계곡 중심

광양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조성하고자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봄철~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내수면에서 어망 등 간단한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 일반인들의 위반행위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돼 행정력 낭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광양시는 봄철 산란기 및 유어행위(간단한 도구로 물고기 잡는 일)가 증가하는 4~10월 유어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예방 현수막 부착 등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각종 해양수산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